

LOCAL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영암, 폭염 드론순찰대 운영 고령 농업인 야외현장 애찰

영암군이 드론을 이용해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자율방재단이 '폭염 드론순찰대' 운영에 들어갔다.

드론순찰대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야외 작업 현장을 집중 예찰해 온열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산업용 드론 2대를 구입하고, 드론 조종 자격을 가진 지역자율방재단원을 2인 1조로 된 2개 팀을 편성했다.

이들은 각각 영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폭염 취약시간대에 하루 2개 읍·면을 돌며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전까지 사람이 농업 현장을 돌며 순찰하던 방식에 비해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며 작물 사이에서 작업 중인 농업인까지 꼼꼼히 챙기는 예찰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공지능 기능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작업자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어 농업인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군은 폭염 드론순찰대를 이달 말까지 가동해 기존의 순찰 활동을 보조하며 폭염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암=원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 혜택 구매 한도 최대 200만원 상향

보성군은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의 실질 혜택을 15%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월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군민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형 상품권은 기존 10% 선 할인에 더해 사용 시 5% 캐시백이 적용돼 총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 혜택 확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국비 인센티브 예산으로 추진되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성사랑상품권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경우 관내 농업 현장 장구를 방문하거나, 휴대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mt66@

'미식도시 장성' 특화음식 거점시설 조성 순항

군, 12월 외식분야 창업 전문교육시설 개원 목표 김한중 군수 "창업인재 육성·일자리 창출 역할"

장성군이 외식분야 성장·발전 거점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외식분야 창업 전문교육시설이 오는 12월 개원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장성군은 물론 관광분야 성장에 주력해 왔다.

백양사 연간 방문객 최초 100만명 돌파,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및 가을꽃 축제 성공 개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300억원 규모 '장성 원더랜드' 조성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도 잇따라 선정돼 기대를 모았다.

관광 수요와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열

쇠는 '음식'에서 찾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한 음식 '봄'이 일면서, 백양사 사찰음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동시에 청정 환경에서 자란 장성산 먹거리도 화제의 중심에 섰다.

농가 직거래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장성로컬푸드 점단 직매장'이 개장 3년 만에 누적 매출 300억원을 돌파하며 이러한 인기를 입증했다.

군은 올해 농가 레스토랑 '장성한상'을 열어 '장성 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외식분야 창업 전문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옛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포즈를 취한 호남대 청년 세프들.

군은 내부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옛 노인복지회관(장성읍 문화로 110)을 활용해 외식분

야 창업 교육시설을 구축하기로 하고 '리모델링(수선) 공사 실시' 등 필요한 운영을 진행했다.

수선 공사 규모는 용역 결과에 따라 34억원으로 책정됐다.

범적 단일기준 충족, 방송·창호·전기·통신·가스 등 옛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보강이 불가피했다. 지난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11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교육시설은 지상 2층 1133㎡ 규모로, 1층에는 조리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2층에는 베이커리·카페 교육장, 쿠킹 스튜디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군 직영과 위탁기관·단체 공계 모집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2022년 노인회관 신축으로 쓸모를 잃었던 옛 노인복지회관이 '미식도시 장성' 실현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창업인재 육성, 특화음식 개발 등 청년 창업,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영암군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린바이오 천연물산업 육성 손잡았다

장흥군-영암군, 천연물 기반 바이오산업 협력 업무협약

장흥군과 영암군이 그린바이오 천연물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영암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천연물 기반 바이오산업의 공동 발전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지자체는 보유한 천연물 자원과 바이오 인프라를 연계해 △천연물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공동 육성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교류 촉진 △천연물 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행정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흥군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에 선정되며 천연물 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암군 역시 천연물 원료 생산지로서 농업기술과 연계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보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부로 지정될 경우 국비 인프라 사업 공모 자격과 기업 지원 가정, 부지 특례 등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장흥군과 영암군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그린바이오산업 6대 분야 가운데 '천연물 육성지구' 지정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자체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 발굴, 국비 확보, 정책 연계 방안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을 넘어선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기업-소비자-플랫폼 융합...화순팜 개편

군, 전국 최초 'B2B2C' 모델 시스템 운영

화순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이 전국 최초로 B2B2C(기업-소비자-플랫폼) 융합형 모델로 전면 개편하고 새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기존 단방향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 맞춤형 추천, 기업 전용 대량 구매 채널,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협업 등 양방향 유통 혁신 플랫폼을 구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공공 쇼핑몰 중 최초 사례다.

특히 화순사랑상품권 간편 결제 기능이 도입되면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져 지역 내 선순환 소비 구조가 마련됐다. 새제품 선보이는 화순팜 e-선물카드는 프랜차이즈 카페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형태로 발행돼 명절·생일 등 기념일에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다. 화순팜 e-선물카드를 선물 받은 사람은 화순팜에서 농·특산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군민의 생활 편의 향상과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 담래품 지급 과정에도 활용되어 행정 절차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팜은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 군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행정에는 효율성을,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증대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행정 투명성 강화" 안도 중요 기록물 전산화 추진

군,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도군은 보유한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보강 관련 중요 기록물 약 4만면을 대상으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랜 기간 보존돼 온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산화 대상 기록물은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되며,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 데이터'를 항목별로 구축해 검색 기능도 강화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록물 훼손 방지와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민의 권리와 직결될 수 있는 보강 관련 기록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민원 처리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도=김혜국 기자 kkr1831@gwangnam.co.kr

검색창에 광주판촉물 검색 나라장터 S2B 학교장터 등록업체

판촉물 / 기념품 / 굿즈

광주판촉물

www.광주판촉물.com

062.376.5431